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부활 제6주일



사랑의 원동력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미국 볼티모어에서 한 대학 사회학 전공팀이 200명의 젊은이들이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한 교회를 심층 조사하였습니다. 결론은 ‘그들에게는 희망도, 기회도 거의 없다.’였습니다.

25년 뒤 어느 사회학 교수팀의 추적조사로 그들 중 180명을 찾아 심도 있는 면접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176명이 크게 성공하여 변호사, 성직자, 의사, 사업가 등의 성공한 사회인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팀은 너무 궁금하여 그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을 이룩해낸 요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여선생님의 이름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팀은 다시 그 여선생님을 방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는 학생들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무슨 비결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하기를 “나는 그들 각자를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은 그 사랑을 감지했을 뿐입니다.”

사랑의 힘은 이렇게 창조적이고 역동적입니다. 한 여선생님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헌신, 소명 의식을 지닌 사랑은 20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하느님의 훌륭한 창조의 파트너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사랑은 생을 단념하려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랑은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녀들이 의미 있는 참된 사랑을 생활화해 갈 수 있도록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우리 삶의 동행자, 교사, 멘토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 예화의 여선생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비난과 무시와 방임을 경험하고 많은 정서적,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는 그들을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보고, 연민의 마음으로 치유시켜주었습니다. 많은 칭찬과 인정, 공감과 수용, 환대와 격려로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들 개개인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귀중한 존재, 하느님께서 당신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창조의 파트너임을 자각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원동력인 성령님께서서는 이 여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자각하고,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깊이 통찰한 후 자아를 실현하고, 충분히 기능하는 사회의 역군으로서 발돋움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로 참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을 전달하면서 살아갈 때에 인류 가족의 참된 행복과 평화가 꽃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권창현 요셉 신부 | 중앙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사도 15,1-2,22-29
- 화 답 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제 2 독 서 묵시 21,10-14,22-23 또는 22,12-14,16-17,20
- 복 음 요한 14,23-29 또는 17,20-26



교구장 주교와 함께(Bishop's Appeal)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난민 돕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와 함께 아파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충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 나 거기 서있다(박노해 시) -

- ▶기간: 5월 22일(주일)~6월 4일(토)
- ▶대상: 본당, 단체, 일반 등
- ▶방법: ·기도 - 5월 22일, 29일 주일미사 보편지향기도
·2차 헌금 - 5월 29일(주일)
·후원계좌 - 농협 301-0154-1813-41
(재)마산교구천주교회
- 주관: 천주교마산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청 신축공사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교구청 신축공사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사제관은 옥탑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고, 교구청 본관은 옥상 바닥에 철근 배근을 하였으며, 현재 지하 공동구에선 설비 배관과 케이블 트레이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수녀원은 창틀과 문틀 코킹 작업을 시작으로 건물 외벽에 붉은색 벽돌 치장 쌓기를 시작하고 있다.

아울러 원로사목자 공동사제관으로 쓸 건물의 리모델링 작업도 시작하였다. 내부 벽체 철거작업과 함께 두꺼운 단열재로 천정을 덮었고, 설계에 따라 내부 벽돌쌓기와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에는 교구 루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추진위원장(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은 “기금을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하였다.

진동본당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1,500차 기념 주회

진동본당(주임: 조정제 오델론 신부) 천상 은총의 Cu.(단장: 이경모 라이몬도) 소속 그리스도의 어머니 Pr.(단장: 김윤희 율리아나)은 5월 6일 1,500차를 맞아 기념 주회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Pr.은 월남동본당 소속 진전공소 시기에 설립되어 1993년 진동본당으로 승격된 이후 본당으로 편입되어 꾸준히 기도와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김윤희 단장 외 8명의 여성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주회에는 주임 신부를 비롯하여 꾸리아 간부 및 많은 행동 단원이 참석하였다. 주임 신부는 훈화에서 2,000차, 3,000차 주회가 되어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활동할 것을 당부하며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였다.



성모님은 맑고 깨끗한 창문과 같습니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우리는 성모님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호칭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원죄 없으신 탄생’ ‘평생 동정’ ‘미혼모’ ‘과부’ ‘성모 승천’ ‘그리스도의 어머니’ ‘여왕’ ‘성모 발현과 기적’ ‘전구자’ ‘바다의 별’ ‘평화의 모후’ ‘천상의 모후’ 등등. 토마스 머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모님에 대한 이미지는 ‘주님의 종이었다. 왜 그가 ‘주님의 종’으로 성모님을 강조한 것일까? 스스로를 ‘주님의 종’으로 묘사한 성모님을 통해 머튼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

초기 머튼에게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중재자였다. 그래서 성모님께 전구의 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후기 머튼에게 성모님은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분,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삶을 사신 분, 아들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신 분이셨다. 성모님은 머튼에게 있어 관상의 모델이 되었다. 성모님의 단순한 관상적 삶에 대해 머튼은 『논쟁점』(Disputed Questions)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성모님은 인간과 모든 그 일상 안에서, 어떤 드라마틱하거나 굉장한 행복감 없이 그녀의 삶의 방식 안에서 단순하고 겸손하게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 가까이 계신다.”

관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머튼은 성모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향한 태도 안에서 하느님의 도구로서의 역할보다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인 성모님의 완벽한 겸손과 순종에 매료되었으며,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온전히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사신 성모님과 같이 자신도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관상의 삶을 살고자 했다. 그럼 머튼이 말하는 관상의 모델로서의 성모님의 순종과 자기 비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성모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에 ‘왜’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응답하셨다. 이 성모님의 ‘예’라는 순종의 응답을 통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모님은 ‘말씀이신 아드님과 태중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긴 기다림 속에서 함께하셨다. 관상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관상은 성모님께서 아드님의 탄생을 위해 기다리셨고, 아드님의 공생활의 시작을 기다리셨고, 아드님의 부활을 기다리셨듯이,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재탄생하시기 위한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맞들이며, 고요한 미풍 가운데 들려오는 침묵의 말씀을 들으며 기다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하나 되어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

성모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아드님과 일치된 삶을 사셨기에 머튼은 성모님을 유리창에 비유하며 그분의 자기-비움과 깨끗함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수도생활 초기에 벌써 일어났다. 그는 수도원 입회 후 6년째 되던 해 일기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1947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에 첫 저녁 기도를 바친 다음부터 (당신에 대한 창문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머튼은 『새 명상의 씨』에서 “이기심이 전혀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성모님은 햇빛을 들여보내는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 맑은 유리창과 같이 깨끗하십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성모님은 너무도 맑고 투명한 창문이기때 성모님을 바라보지만 성모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머튼은 성모님을 창문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노래했다.

저의 뜻은 창문과 같기에, / 그리고 태초의 탄생이 교만이 아님을 알기에,
 저의 삶은 빛에 의해 창문과도 같이 사라짐입니다.
 저는 신랑의 태양의 강렬한 빛 안에서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저의 사랑은 창문과 같기에, / 그리고 태초의 먼지와 같은 탄생이 수치가 아님을 알기에,
 저는 저의 죽음의 새벽까지 온 밤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저의 성령과 혼인하던 날, 그리고 거룩한 변모에 의해 빛 안으로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머튼은 1962년 강론에서 “순수함과 겸손의 완전함에 의해 성모 마리아보다 하느님의 빛을 더 완벽하게 소유한 이는 없었다. 그녀는 빛이 비취지면 온전히 사라지는 듯 보이는 깨끗한 유리창처럼 진리와 충만이 하나 되었다”라고 성모님과 하느님의 일치를 유리창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깨끗하고 맑은 유리창이신 성모님에 관한 머튼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깨끗한가 반성하게 된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아닌가 되 돌아보게 된다.

어른들에게 전하는 글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성모님의 달, 가정의 달, 5월은 생명이 가장 활기찬 몸짓을 하는 계절입니다. 꽃과 건강한 초록이 가득한 5월에 향긋한 꽃내음을 맡으며, 코로나를 잊고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매일이도록 성모님의 전구 안에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향을 담아 기도합니다. 생기 넘치는 초록의 자연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계절을 누리고 싶습니다.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속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가정의 날, 16일 성년의 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올해로 어린이날은 100주년이 되었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100년 전에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쓰셨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대로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1923년 5월 1일, 방정환]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2. 어린이를 늘 가까이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3.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4.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5.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6. 산보와 원족(소풍) 같은 것을 가끔가끔 시켜주시오.
7.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8.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9. 대우주의 뇌신경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100년 전에 어른에게 드린 글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육아를 하도록 어른들에게 전해주는 오은영 박사의 부모 십계명도 함께 보겠습니다.

부모 십계명: 1.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2.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3.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4. 때리지 마세요. 5.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6.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7.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8.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세요. 9.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라고 화낼 때 너무 속상해하거나 같이 화내지 마세요. 10.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세요.

아이들은 넓은 집, 부유하게 사는 것을 사랑의 우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사랑을 받고 다양한 감정의 결을 제대로 느끼고 배우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모든 어른 안에도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만을 위한 배려와 지침이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글이며 계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랑

김현주 스텔라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저기 나이 든 남자선생은 총각이제?”

하루 종일 ‘장*익’과 ‘나*아’노래만 듣는다는 어르신이 슬며시 물으셨다.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째 접어들면서 지난 1월에는 ‘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실습을 했다. 할머니들만 계시고 원장부터 요양보호사, 실습생까지 여자들이라 남편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 말(공부하자고 강권한 것)을 잘 들어서 예순이 넘는 나이에 인기를 얻는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실습생이 맡아서 해야 하는 인지프로그램은 ‘노인미술’ 수업에서 반응이 좋았던 주제와 특별히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주제를 찾아 준비했다.

“와? 뭐한다고. 안할까!”

“이래 자꾸 공부해야 손자들 대학갈 때까지 건강하게 계신다니깐요. 내하고 해보입시다”

“그라까...”

화내거나 판청을 피우다가 총각선생에겐 세상없는 모범생이 되는 어르신들은, 사실 치매가 좀 더 진행된 상태였다. 설이 다가올 즈음에는 ‘시장놀이’를 생각해 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시장은커녕 나들이도 못한 어르신들에게 ‘대목 장’을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었다. 문어, 돔, 조기와 과일 등은 사진으로 준비하고 바나나와 비스킷, 음료는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 실물로 준비했다. 천 원부터 오만 원까지 작은 크기로 프린트한 돈을 장바구니에 넣어 드리고 무인계산대도 꾸몄다. 총각선생팀 어르신들은 장바구니는 가득 채우고 계산하기는 거부하셨다. 늘 휠체어에 앉아서 말도 못하고, 수저도 들 수 없어 식사수발을 들어야 하는 어르신까지 장바구니에서 돈을 꺼내 꼭 움켜쥐고 계셨다. 바나나를 먹여 드리면서 계산해 봅시다 하니 손을 뿌리치며 감추려고 애쓰셨다. 또 목욕시키고 갈아입은 옷을 세탁중인 요양보호사에게 당신 옷을 훔쳐갔다고 보행기를 던지고 욕하며 소란 피우던 어르신은 돈을 보자마자 웃으며 세어보고, 액수대로 정리하셨다. 장*익보다 나*아보다 더 좋다는 총각선생이 집에 갈 차비가 없다는데 좀 보태주셨으면 했더니 돈이 어디 있냐며 다시 보행기를 던지고 화를 내셨다.

설을 쇠고 인사차 들렀을 때, 요양보호사가 ‘시장놀이’가 최고였다고, 용돈(?)으로 모두 행복한 설을 보내셨다고 전해주었다. 보행기를 던지는 어르신은 밤마다 세어보고 감추느라 주무시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랬던 돈을 설날 면회 온 딸에게 차비로 주셨는지, 사무실 책상위에 두고 갔더라고 했다. 돈 욕심만 남은 치매환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잃어버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움켜쥐고 있던 것은 사랑이었다. 먼 길 찾아온 딸에게 줄 차비, 손자에게 전할 용돈, 기저귀 갈아주는 요양보호사에게 주고 싶던 마음이어서 꼭 쥐고 계셨던 거였다.

언젠가 나도, 사랑만 기억하길 바란다. 시들어가면서도 씨앗을 품는, 그런 꽃으로 남고 싶다.



일 림

건강성사

일시: 5월 29일(주일)

장소: 회원동성당

집전: 총대리 최봉원(야고보) 신부

본당 재정업무 지도방문

일시: 5월 25일(수)

본당: 남해/ 진교/ 하동

일시: 5월 26일(목)

본당: 삼천포/ 서포선교/ 사천

교구/본당

공소화장협의회 모임

일시: 5월 26일(목)~27일(금)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년 신앙강좌

일시: 5월 29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시: 5월 26일(목) 13:30

장소: 교구청

소성리 평화미사

일시: 6월 6일(월) 14:00

장소: 소성리마을회관 천주교상황실

(경북 성주 소성리)

주최: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 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젊음의 집(평생교육원) 안내 및 행정 도우미 모집

일시: 화~토 13:00~17:00(4시간)

대상: 30~50세 이전

경력: 상관 없음

문의: 010·7661·3832

예수수도회 6월 피정

피정 장소: 메리우드 센터(서울 오류동)

청년 주말 피정: 6월 11일(토)~12일(주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3545 피정: 6월 17일(금)~19일(주일)

대상: 35세~45세 미혼 여성

생활 피정(일상안에서의 영신수련 12주간):

대면/비대면

대상: 4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010·2314·1645

2박 3일 침묵 피정: 6월 24일(금)~26일(주일)

문의: 010·9608·0208

재속 프란치스코 지원자 모집

모집기간: 4월~6월

과정: 지원자반 1년 교육 후 입회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

문의: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유프라(청년 모집)

모집기간: 4월~6월

대상: 신자 및 비신자로서 18~35세 미만의 미혼 남 여/ 태양과 바람 나무를 사랑하고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젊은이

문의: 010·4557·5134, 010·6711·4014

세계최초 음향표준 이어폰
당신이 꿈꿔왔던 감동의소리를 만나보세요

SONICAST djrem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sonicast>
(네이버에서 '소니캐스트'로 검색 가능)
대표 이사: 이의렬 대건 안드레아/ 055-288-3768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소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미르코 투어 010-4239-192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우리농 생필공동체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피정 또는 단체 피정(5명 이내)
 교육: 교리 교육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가톨릭 신자 앱’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본당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차세대 본당 양업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가칭 ‘가톨릭 신자 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가톨릭 신자 앱’에 교우 여러분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기간: 5월 15일(주일)~6월 5일(주일)까지

▶ 참여 및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접속하여 참조 바랍니다.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감:** 9월 30일(금)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황광지 포토에세이

언니의 뜰

– 언니의 사진을 이야기하다

성모자상 앞에서의 기도가 간절하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자라면서 어머니의 입에서 노래처럼 나오는 “성모여 성모여”를 참 많이도 들었다/ 우리도 급하면 성모님을 부른다./ 얼마나 불렀는지 모른다./ 오늘 성모님이 언니를 부르셨다.” 이런 기도의 실체는 구세사적 즐거이나 영적인 체험을 지닌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바로 알아듣게 된다. “오늘 성모님이 언니를 부르셨다.”는 말에는 바다 같은 언어의 밀물 다음에 치고 오는 운슬 같은 화답이라 할 것이다.

– 강희근 시인 –

- 출판: 불휘미디어
- 지은이: 황광지



마침내 광야를 떠나 요르단강 동편에 이르다(민수기 20-22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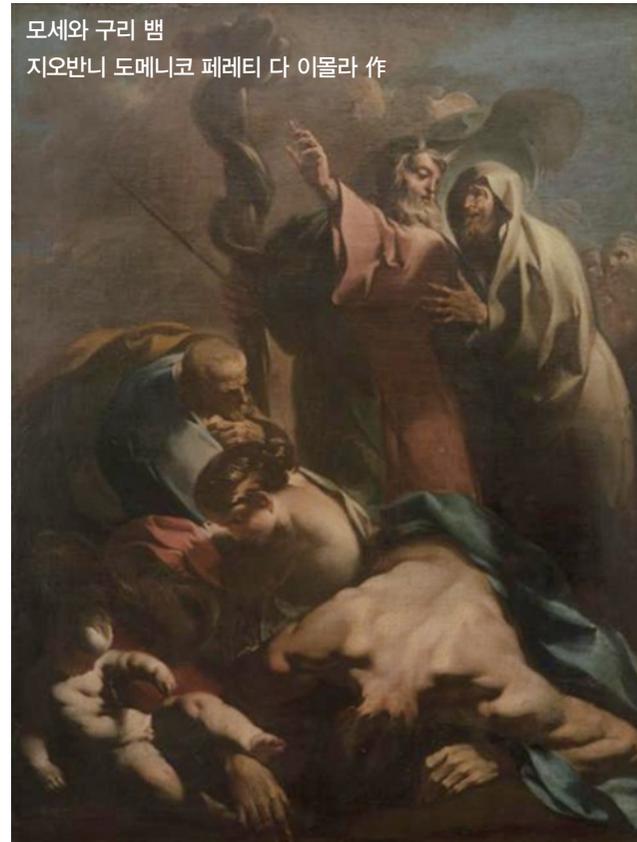
아직 우리는 카데스 바르네아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을 목격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은 모세가 에돔 임금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는 허락을 요청한 것입니다(민수 20,14-21). 에돔 임금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무장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카데스를 떠나 에돔 땅 언저리에 있는 호르산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아론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엘아자르가 아론의 사제직을 맡습니다(20,28). 아론의 장례를 치른 후에 그들은 호르산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름길로는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돌아가기 위하여 다시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섭니다. 이 갈대 바다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건넜던 바다(수에즈만)가 아니라 아카바만을 의미합니다.

아직 광야를 떠나지 못했던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물 부족과 보잘것없는 양식, 곧 하느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해 불평합니다(민수 21,4-5). 그러자 하느님께서 불 뱀들을 보내셨고, 많은 이들이 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느님께서 구리 뱀을 만들어 세우게 하셨고, 뱀에 물렸다가도 구리 뱀을 쳐다본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구리 뱀은 징벌의 도구가 구원의 도구가 된 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터는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사할 동안 흑사병이 퍼져 칠만 명이 죽었을 때 주님의 명령으로 파멸의 천사가 멈추어 섰던 장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2사무 24,16).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징벌의 장소였지만 그곳에 성전이 들어섬으로써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형벌의 도구가 구원의 도구가 된 예입니다. 징벌의 도구와 장소는 우리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회개는 죄의 용서, 곧 구원을 가져다주기에 구원의 도구이자 장소가 됩니다.

구리 뱀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여 제렛 강 건너편에 이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에돔 땅을 다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의 경계는 아카바만에서 제렛 강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제렛 강 넘어 아르논 강까지가 모압의 영토입니다. 제렛 강이 사해 바다의 남단으로 흘러드는 강이라면 아르논 강은 사해 바다의 가운데 지역으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인들의 땅을 돌아 아르논 강 건너편,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시작하는 광야에 이릅니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고, 아모리인들의 땅은 아르논 강과 야복 강 사이에 있습니다. 아르논 강 건너편에서 모세는 아모리 임금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 땅을 지나갈 허락을 청하였지만 시혼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러 군대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에 그들은 아모리 임금 시혼과 싸워 승리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또 바산으로 올라가 바산의 임금 옥과 싸워 그의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압 벌판에 진을 쳤습니다(민수 22,1).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는 소식에 가장 놀란 사람은 모압의 임금 발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락은 겁을 먹은 나머지 당시의 유명한 마술사였던 브오르의 아들 발라암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많은 복채를 주어 발라암을 데려오게 합니다. 과연 발라암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모세와 구리 뱀
지오반니 도메니코 페레티 다 이올라 작